



유방센터,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수상

‘환자 행복 우선’ 유방암 토탈케어 선도



고대 안암병원 유방센터(센터장 배정원)가 3월 2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11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 서비스 대상(KGMSA)’에서 대학(종합)병원 유방센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대 안암병원 유방센터는 유방암 치료의 성공을 ‘의학’보다 ‘환자의 행복’에 맞추고 ‘암 환자 서포트팀(통합지지팀)’과 ‘다학제적 시스템’ 확립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은 환자에게 정신심리학을, 수술 후 팔 운동에 장애를 느낀 환자에게 재활을, 항암제 합병증을 겪는 환자에게 영양학·약학을 통해 정상인으로서의 회복을 돕는다. 의학적 치료가 끝난 후에, 코디네이터들은 환자들이 라이프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운동과 비만관리를 집중적으로 돕고 있다.

유방센터에서는 최첨단 유방 촬영기 맘모그라피와 유방초음파 2대, 시술용 맘모토크기 등 최상의 치료환경을 구축하고, 환자들이 편리하고 진료에서부터 검사, 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센터내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방암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 수술, 항암치료, 호르몬치료,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환자들의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등 친목도모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나눔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는 ‘고유회(유방암 환우회)’를 운영해 많은 환자들이 아픔을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수상병원 선정은 지난해 10월 사전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주최 3사 홈페이지를 통한 네티즌 투표와 병원코디네이터와 컨설턴트로 구성된 모니터링원 등의 현장평가를 통해 2011년 2월까지 약 4개월여 동안 진행됐다. 이후 전문가조사, 네티즌조사, 병원모니터링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통합 집계한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편,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은 한국의료 세계화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동아닷컴, iMBC, 일간스포츠 언론 3사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한국관광공사와 중한의학의료교류협회가 후원했다.



이화발전기금기부

11.01.25	정도광	₩ 10,000,000
11.01.25	이용배	₩ 10,000,000
11.01.31	정도영(44회 동기회)	₩ 2,000,000
11.02.08	의과대학 19회 동기회	₩ 66,277,081
11.02.28	성진형(성예규)	₩ 10,000,000
11.02.21	조국형	₩ 1,000,000
11.02.18	신정순	₩120,000,000
11.03.02	박지용	₩ 6,000,000
11.03.08	김백희	₩ 5,000,000

11.03.09	김용신,김기형	₩ 10,000,000
11.03.15	김정식	₩ 100,000,000
11.03.04	조국형	₩ 5,440,000
11.03.15	이은주	₩ 5,000,000
11.03.30	서보경	₩ 5,000,000
11.03.23	김명윤	₩ 5,000,000
11.03.23	길경미	₩ 5,000,000
11.03.23	이경은	₩ 5,000,000
11.03.23	권태우	₩ 5,000,000


* 기간 : 2011년 1월 25일~2011년 03월 23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한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스페셜리포트 1]

고대 안암병원의 새로운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2011년 3월에 임용된 고대 안암병원의 신입의료진을 소개합니다. 지난 호에 이미 소개되었던 신입 전임교원에 이어 순환근무로 구로와 안산병원에서 새롭게 안암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교원과 신입 임상교원도 모두 소개합니다. 앞으로 고대 안암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의료진들의 열정을 기대해 봅니다. 



김민지 교수 가정의학과
금연, 비만, 건강증진



김리나 교수 재활의학과
스포츠의학, 족부, 족관절통, 견관절통증



전우주 교수 정형외과
수부 및 미세 재건 외상, 정형외과 일반



강성구 교수 비뇨기과
일반비뇨기과학



최재은 교수 피부과
여드름, 아토피, 레이저



김창하 교수 소화기내과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정홍명 교수 소화기내과
소화기질환



김진동 교수 소화기내과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박예민 교수 순환기내과
심장질환, 부정맥



김미나 교수 순환기내과
심장질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관막질환



조은정 교수 신장내과
고혈압, 신장질환



김시현 교수 감염내과
감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최은지 교수 혈액종양내과
고형암의 항암화학치료, 혈액질환



유영동 교수 간담췌외과
간, 담도, 췌장질환



신재원 교수 대장항문외과
대장항문질환



이혜윤 교수 유방내분비외과
유방 및 갑상선질환



안성대 교수 신경외과
척추질환, 두부외상



조종호 교수 흉부외과
일반흉부질환



정순일 교수 성형외과
외상



이상훈 교수 산부인과
일반산부인과



남효경 교수 소아청소년과
소아내분비



이은희 교수 소아청소년과
미숙아, 신생아질환



박세진 교수 이비인후과
비과, 일반이비인후과



박민우 교수 이비인후과
두경부, 일반이비인후과



신 은 교수 병리과
간·신장병리



류병주 교수 재활의학과
암환자재활, 심장재활, 장애평가



김예진 교수 치과
교정과



박종학 교수 응급의학과
심폐소생, 외상

진료예약
1577-0083

[스페셜리포트 2]

JCI 재인증 위한 TFT 본격 가동 JCI TFT, 내년도 재인증 성공 다짐!




고대 안암병원은 3월 22일 오전 9시 8층 대회의실에서 'JCI 재인증 준비 TFT 발대식' 을 개최하고 JCI 재인증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JCI 재인증의 효율적인 준비 및 병원내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TFT 발대식에는 정광운 JCI TFT 팀장(진료부원장)을 비롯해 이기형 기획실장, 박중훈 적정진료 및 환자안전관리위원장,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이은숙 간호부장 등 병원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JCI 재인증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다.

JCI TFT는 병원평가책임교수 36명과 지원부서 25명 등 총 6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TFT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진행될 JCI 재인증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광운 JCI TFT 팀장은 'JCI 인증준비 추진일정과 전략' 등을 소개하며 "JCI 재인증을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퇴원까지 겪게 되는 1222개의 의료 설비, 서비스 항목에 대한 평가를 매우 자세하게 평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만이 JCI 재인증을 여는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JCI TFT 발대식 이후 안암병원 적정진료관리팀은 직원의 효과적인 질향상과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2011 QI&RM(Quality improvement and risk management) 워크숍' 을 개최했다.

이번 Workshop에서는 지표, QI, CP의 개념 및 활동방법과 위험관리에 대해 약 3시간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안암병원 교직원 약 13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호응을 얻었다. 

[스페셜리포트 3]

고대 안암병원-포천시 MOU 체결 포천시민위한 사회공헌활동 실시할 터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4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병원 본부회의실에서 경기도 포천시와 상호 교류·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창덕 고대 안암병원장, 김영우 국회의원, 서장원 포천시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향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호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폭넓은 협력을 유지하는데 동의했다.

이로서 고대 안암병원은 경기도 포천 시민들에게 종합건강검진 할인을 비롯해 시민들을 위한 무료진료와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포천시 역시 지역 특산물의 할인 공급과 포천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의 의료관광 유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포천시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의료복합관광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중국내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체결식에서 고대 안암병원 김창덕 원장은 "오늘 체결한 양 기관의 협약 내용이 앞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포천시와 고대 안암병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의학의 새로운 지평 '통합의학'

쿠키건강칼럼 2011년 4월 4일 게재

[의학 칼럼]



만성질환과 환경성 질환 등의 증가, 현대 의학적 한계, 환자의 건강에 대한 적극적 요구 등은 의료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바로 통합의학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통합의학이란 현대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한의학 및 대체요법을 보완적으로 병행해 환자들에게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학의 새로운 분야를 말한다.

즉 신체적 치료를 중시하는 현대의학에 더해 정신적·심적·사회적 치유를 중시하는 자연요법을 접목시켜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병행해 실시하는

치료법이라 하겠다.


통합의학은 환자 중심의 새로운 의료로 각광 받아 미국의 하버드, 존스홉킨스, 듀크, UCLA, UCSF, 조지타운, 토마스 제퍼슨, 미시간, 워싱턴, 미네소타, 텍사스의 MD앤더슨 암센터, 스탠포드, 독일 베를린, 에센 등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대학병원에서 '통합

의학 센터' 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대학병원, 개인병원 등에서 통합의학센터가 속속 개설되고 있다. 현재 대학병원급에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가장 규모가 큰 통합의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 통합의학적 진단과 치료는 언제 필요할까?

예를 들어 아토피피부질환의 경우 치료대상은 스테로이드치료를 원하지 않거나 스테로이드체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자주 재발되는 환자다. 먼저 진단은 현대의학 전문의이면서 통합의학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통합의학적 진단(현대의학+한의학+보완대체의학)이 이뤄진다.

이어 치료 역시 통합의학적 방법으로 진행된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현대의학 치료와 함께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효과가 널리 알려진 자연요법을 병행하게 된다. 자연요법으로는 식물성분의 전문의약품 처방과 함께 식이영양요법, 목욕요법에 대한 교육,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리치(의료용거머리)요법, 동종요법, 탈라소요법 중 환자별로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해 치료하게 되는 것이다.

그밖에도 요통이나 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수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우울증·불면증 환자가 화학약품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 암환자가 치료를 포기했거나 항암제 부작용을 줄이고 싶은 경우, 진단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는 미건강인의 경우 통합의학을 적용하게 된다. 

글 | 통합의학센터 이성재 교수
외래 | 02)920-6930

고대 안암병원-성북장애인복지관, 무료진료 협약 체결



고대 안암병원(원장 김창덕)은 지난 3월 24일(목) 성북장애인복지관 무료진료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월 1회 지속적으로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서 고대 안암병원은 앞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 의료진 및 의료장비, 약품 등을 지원하고, 성북장애인 복지관은 장소 및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성북구 보건소는 무료진료 실시와 관련된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 다음 날인 25일(금)에는 성북장애인 복지관에서 무료진료가 이루어졌다. 이번 무료진료에서는 내과 및 재활 의학과 의료진 3명이 장애인과 지역주민 약 9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무료협약식은 지난 2010년 11월 9일 성북구와 고대 안암병원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비롯한 각종 보건사업에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던 MOU 협약 체결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또한 고대 안암병원은 이번 무료진료 이외에도 원내 자원봉사자 단체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자원봉사자들과 성북구 내 자원봉사 수요기관을 연계하는 사업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고대 안암병원 김창덕 원장은 MOU 체결식에서 “성북구 유일의 대학병원으로서 보건소, 지역 복지관들과 협력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번 MOU 체결이 그 첫 걸음이 되어 앞으로 무료진료를 비롯한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MOU 체결이 그 첫 걸음이 되어 앞으로 무료진료를 비롯한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봄과 함께하는 클래식 여행, 음악회 개최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3월 30일(수) 오후4시 8층 대회의실에서 '봄과 함께하는 클래식 여행'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지는 성악가의 해설로 이루어진 이번 음악회 공연에는 150여명의 환자, 보호자들이 참석해 봄의 상큼한 클래식을 만끽했다. 1부 공연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사란과 첼리스트 박은주, 피아니스트 김윤경으로 구성된 '김사란 트리오'가 ▲Moon River(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 OST) ▲Por una Cabeza(영화 '여인의 향기' OST) 등 익숙한 곡을 비롯해 ▲When You Wish Upon A star(영화 '피노키오' OST) ▲Oblivion ▲Lamuerte del Angel ▲Cafe Music 을 연주했다. 또한, 2부 공연에서는 베이스 함석헌이 ▲She(영화 '노팅힐' OST) ▲Nella Fantasia ▲Besame Nucho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오페라 '사랑의 모약' 중 약장수의 아리아) 등을 노래했다. 이번 공연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 김은주(42) 씨는 “수술 후 통증에 시달리는 엄마에게 모처럼만에 즐겁고 마음 편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며 “병원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봄을 선물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0년 하반기 의무기록 정리 우수부서 표창

최우수부서에 소아청소년과, 우수부서에 소화기 내과, 종양내과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3월 30일 중회의실에서 '2010년 하반기 의무기록 정리 우수부서'를 표창하고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이날 하반기 의무기록 최우수부서에는 소아청소년과가, 우수부서에는 소화기내과와 종양내과가 각각 선정되었으며, 소아청소년과장 박상희 교수, 소화기내과장 전훈재 교수, 종양내과장 김병수 교수가 대표로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2010년 하반기동안 재원 중 의무기록작성율, 월평균 차트 완성률, 기록충실도, 평균재원일수, 전공의 담당 환자수, 교수 서명완성률 등의 의무기록을 종합평가해 이루어졌다. 의무기록관리위원회는 의무기록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매년 분기별로 의무기록정리 우수전공의를, 매년 반기별로 의무기록 정리 우수부서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 우수인재 해외로 보낸다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의료원은 VISION 2020 인재양성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우수 임상교원을 선발해 해외연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연수 지원자로 첫 선발된 임상교원은 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 과장

면 교수, 산부인과 박현태 교수, 구로병원 외과 최세별 교수, 신경외과 문홍주 교수 총 4명이다. 이들은 3월과 4월에 걸쳐 모두 미국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연수기간은 1~2년으로 각각 총 2천여만원의 연수지원금을 받게 된다.

손창성 의무부총장은 “고려대의료원은 진정한 세계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핵심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의료원 전체 글로벌 교육을 강화해 조직문화 자체를 선진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로 임상교원을 선발해 해외연수를 지원하며,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입직원이 CEO와 한테이블에서 호프잔 기울인 사연




고려대학교의료원은 3월 28일 오전 9시부터 안암병원 8층 중회의실에서 '2011년도 일반직 신입직원교육'을 진행했으며, 저녁시간을 이용해 'CEO와 신입직원이 함께하는 호프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직,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일반업무원 등 공채

및 정규직 전환자 4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들은 의료원을 비롯해 의대 및 3개 병원 각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2011년 신입직원교육에서는 ▲의무부총장 환영사 ▲소방안전교육(시설팀 서정학) ▲노동조합 소개 ▲환자의 권리와 책임(원무팀 윤숙녀 파트장)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기(보건관리자 백용길) ▲질 향상과 환자안전(Q.I.팀 광미정 부팀장) ▲의료원 비전 및 현황발표(이상학 의무기획처장) ▲감염관리 예방 및 손씻기(감염관리사 이승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저녁 6시부터는 자리를 옮겨 'CEO와 신입직원이 함께하는 호프데이'를 개최해 교직원간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호프데이에는 손창성 의무부총장, 김병균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료원 팀장들이 모두 함께 참석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병원소식


故 신정순 명예교수, 고려대의료원에 1억 2천만원 기부



한 대학 명예교수의 유지(遺志)에 따라 유가족이 고인이 몸 담았던 모교에 기부금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고(故) 신정순 고려대 명예교수(고대의대 9회 졸업, 전 대한마취과학회장)의 유가족인 부군(夫君) 김기정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고대의대 마취과학교실 졸업 후 연수를 위한 지정기금으로 써달라며 1억2천만원의 의학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김기정 명예교수가 별세한 부인이 몸담았던 모교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은 평소 고인의 모교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생전에 고인은 2003년과 2004년 등 두차례에 걸쳐 고대의대 신축을 위한 발전기금을 기탁했으며, 1995년 시신기증자를 추모하는 의과대학 '감은탑' 건립비용으로 2000만원을 쾌척하는 등 모교사랑이 남달랐다. 정년퇴임 이후에도 고려대의대 및 의학분야 발전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고 신정순 명예교수는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었다. 신정순 명예교수의 유족인 고려대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김애리 교수는 "모친께서는 후학을 위한 더 큰 나눔을 위해 항상 노력 하셨던 분이다. 모교사랑이 각별했던 어머니의 뜻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고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4일에 별세한 고 신정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대한마취과학회장 등을 지내며 국내 의학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제 17회 호스피스회 정기총회 개최



호스피스회(회장 신상원)가 지난 3월 23일(수) 대회의실에서 제17회 호스피스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호스피스회 정기총회에 따르면 2010년 자원봉사자 41명을 비롯해 총 268명이 활동했으며, 2,013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6천건 이상의 봉사를 실시했으며 이외에도 1,500건 가량의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박경화, 리타 수녀 등 두명의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장도 전달됐다. 호스피스회장 신상원 교수는 "박경화 봉사자님과 리타 수녀님은 봉사를 꾸준히 해오셔서 그렇지 지난 10년 간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고 감사장을 받은 자원 봉사자를 축하하며 "2011년도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내시경실 정선임 간호사, 학회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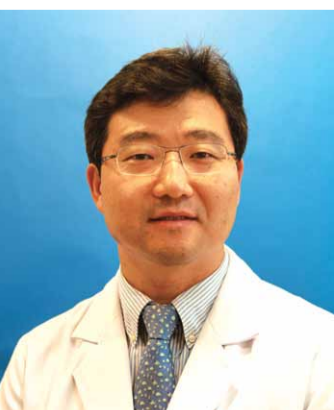
내시경실 정선임 간호사는 3월 20일(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제 44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Nurse and Doctor Forum)'에 '내시경실 진정관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날의 발표 요지는 진정내시경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전문·표준화된 진정규정 준수 및 진정 시행 자격을 겸비한 내시경실의 의료진과 진정의 시작부터 회복완료 시점까지의 모니터링, 진정을 위한 환경 및 시설, 응급상황 발생 시의 신속·정확한 대처를 위한 준비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날 안암병원의 선진화된 내시경실 진정관리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학회에 참석한 타병원의 큰 호응을 얻으며 안암병원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JCI 재인증 위한 교육 실시



고대 안암병원에서는 지난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 8층 대회의실에서 'JCI 인증기준 교육' 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첫날에는 적정진료관리팀 김은희, 박유선 대리의 ▲진료의 이용과 연결 ▲환자와 가족의 권리 ▲환자와 가족의 교육 ▲환자평가 ▲환자진료 ▲정보교환과 정보관리 ▲약물관리와 사용 등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둘째날에는 적정진료관리팀 광미정 부팀장의 ▲질향상과 환자안전 ▲국제환자안전목표 ▲행정, 지도력 및 관리 감염관리실 이승은 감염관리사의 ▲감염예방과 관리, 적정진료관리팀 장형은 대리의 ▲시설 관리와 안전 ▲마취와 수술진료 ▲직원의 자격요건과 교육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2009년 8월 JCI 인증을 획득해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병원 (Global Safety, KUMC)" 으로 공식 인정받은 바 있으며, 지난 3월 22일에는 'JCI 재인증 준비 TFT 발대식' 을 개최하고 JCI 재인증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정신과 이현정교수, 대한수면의학회 학술상 수상



정신과 이현정 교수(사진)가 지난 2011년 4월 1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수면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수면의학회 학술상' 을 수상했다. 이현정 교수는 불면증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하지불안증후군' 의 유전적 원인을 밝히는 연구를 해왔으며, 이번 학술상 수상도 그간의 하지불안증후군 연구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 교수는 수면장애, 기분장애,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과 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관한 60여 편의 논문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하고 있다. 

KUMC 소셜미디어 서비스 오픈

facebook.com/KUMCfriend

twitter.com/KUMCnews

[건강정보]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 협심증과 심근경색

심혈관센터 내 혈관중재술 연간 3천건 실시, 국내 TOP 수준 스마트폰통해 24시간 의료진과 연결, 논스톱 응급치료로 소생률 높여

▲10년간 사망률 4배 이상 급증, 협심증과 심근경색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최근 10년간 협심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4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에는 근육(심근)이 있고, 이 심근이 튼튼해야 심장이 건강하다. 심근은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혈액이 원활히 공급될 때 제 역할을 한다. 심근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데, 이 질병을 협심증(狹心症)이라고 한다.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증으로 진행되고, 결국 심장이 피를 짜내는 우리 몸의 엔진 역할을 하지 못한다. 사망하게게 된다는 이야기다.

협심증의 주 증상은 흉통(胸痛)이다. 흉통은 주로 가슴의 중앙이나 왼쪽에서 시작되어, 목이나 어깨 또는 왼쪽 팔의 안쪽으로 퍼지며 간혹 턱뼈, 목구멍 등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대표적 증상은 가슴을 쥐어뜯는 것같이 무겁고 답답하며 숨막히는 압박통, 때로는 소화가 되지 않은 더부룩함 등이며, 심하면 불안과 오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통증은 2~5분 정도 지속되며, 때때로 맥박이 고르지 않아 가슴이 울렁거리는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며 실제로 돌연사를 일으키기도 한다.

▲연간 3천건 이상 혈관중재술 실시, 국내 TOP 수준

고대 안암병원 심혈관센터는 혈관의 영상을 볼 수 있는 혈관조영술 2300여건,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혈관 성형술 830여건 등 연간 3천건 이상의 혈관중재술을 실시하고 있어 국내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협심증은 증상이 독특하기 때문에 흉통의 발생, 변화과정 및 동반된 증상으로 대부분 진단할 수 있다. 협심증이 의심되면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는데, 이는 조영제를 이용해 심장의 관상동맥을 직접 촬영함으로써 혈관이 좁아진 위치와 그 정도를 알아내는 정밀검사다. 협심증은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대 안암병원의 '흉통 환자'를 위한 초진 클리닉에서는 환자가 내원한 당일에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검사를 실시하며, 관상동맥 조영술이 필요한 환자는 당일 시술 후 퇴원하는 '심혈관일일입원실(Cardiovascular Day Care Center)'을 통해 협심증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협심증 치료는 대부분 약물요법으로 하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관상동맥 성형술을 시행한다. 관상동맥 성형술은 좁아진 관상동맥 부위에 작은 풍선(balloon) 또는 스텐트(stent, 금속 망사형 관)를 삽입하여 혈관을 확장시키는 치료법으로 최근에는 재발을 획기적으로 막는 스텐트가 개발되어 치료 효과가 더욱 높다.

▲의료진과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연결, 논스톱 응급치료 실시

고대 안암병원은 급성심근경색환자의 내원시 심장혈관이 막힌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장치로서간인 '120분 이내' 보다 훨씬 빠른 '90분 이내' 로 실현하고 있다.

이처럼 빠른 치료가 가능하게 된 것은 분초를 다투는 심혈관계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 때문인데, 이 지침의 핵심은 심장질환 등으로 실신하거나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응급당직의가 해당환자의 심전도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심혈관센터 담당 의료진에게 전송해 시술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게 함으로써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응급시술을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응급심장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복잡한 의무기록접근성을 간편화해 '응급치료의 논스톱' 진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선진치료시스템을 도입한 안암병원은 급성심근경색환자의 권장치료시간을 국내 최단시간인 60분 이내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급성심장질환 치료의 새 희망, 줄기세포치료 연구

최근 고대 안암병원 흉통 클리닉 임도선 교수가 급성 심장질환의 새 치료법이 될 성체줄기세포 모델을 개발했다. 지

난 2001년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근경색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으로 고대 안암병원(책임연구자 임도선)이 지정된 후 연구에 매진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임도선 교수팀은 생쥐의 골수와 심장 및 지방 조직에서 각각 분리한 성체줄기세포에 인간 유전자를 심는 방법으로 심장혈관 질환 인간 유전자 탑재 성체 줄기세포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 모델은 100세대 이상 계대배양을 거친 후에도 심근세포, 심장혈관 내피세포, 골세포 및 지방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생명윤리 파괴논란이 없고, 임상적용 가능성도 높지만, 질병치료 및 연구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증식시킬 기술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왔으나, 임도선 교수팀의 이번 연구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 난치성 심장혈관 질환 치료를 위한 세포 증식 및 분화 유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성체줄기세포 이식 후 치료 효과, 안전성 규명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바른 생활습관만이 쇠심줄 같은 심혈관 유지

협심증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식, 규칙적인 운동, 표준체중 유지, 금연 및 정신적 긴장 완화 등의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도선 교수는 "심장질환은 물론 돌연사 또한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30대, 20대 젊은 층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심장과 관련된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해 돌연사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기발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가벼운 통증이라도 무시코 넘기지 말고 심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 심혈관센터 임도선 교수 외래 | 02)920-6855



도움말 | 심혈관센터 임도선 교수
외래 | 02)920-6855

심혈관센터 임도선 교수가 함께하는 만화로 배우는 재밌는 심장질환 '가슴이 아파요' 연재



국내 최초의 의학 창작만화, '가슴이 아파요'를 앞으로 연재해드립니다. 이번 만화에는 저자인 임도선 교수가 겪었던 실제 사례와 의료진의 입장에서 느끼는 환자에 대한 마음을 진솔하게 담겨있습니다. 또한, 협심증의 5대 위험 요소인 가족력, 스트레스, 담배, 당뇨, 식습관 등에 대해 흥미진진한 환자의 사례를 이야기로 풀어 설명하고 있어 재미있고, 쉽게 심혈관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앞으로 연재되는 만화가 독자 여러분들의 심장건강을 한 번쯤 체크해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심장질환을 관리하도록 돕는 현명한 건강매니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친절하셔서 감사합니다

[친절칼럼]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며 90도 각도로 인사하며 “친절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웃어라, 동해야’ 에 나오는 안나씨는 본인에게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그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흐뭇한 웃음을 짓게 만들며 인상적인 모습으로 여운을 남게 한다.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

어찌보면 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말 한마디이지만 나는 하루에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살고 있을까?

병원이라는 곳은 아픈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며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고객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다. 내 몸이 아플 때를 생각해 보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짜증나고 귀찮으며 말 하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서 내 맘을 헤아려주고 다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평소 때와는 달리 아플 때 누군가에게 받는 상처는 오랫동안

안 마음에 담아두게 되며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분만 중 남편이 섭섭한 행동을 했을 때 평생을 두고두고 곱씹는 이야기는 한번쯤 들어봤을만한 이야기이다.

‘너희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아라. 너희 아버지가 아파도 이렇게 하겠느냐?’

가끔 불만을 토로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신다.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은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물론 내가 잘못된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 억울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또 그 소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는 않았는가? 단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 오신 고객분들이 아픈 것도 속상하고 서러운데,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상처를 안고 가시지는 않았는가? 항상 아픈 사람을 대하다보니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 기계처럼 대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만일 일상에 젖어 건조하게 고객을 대하고 있다면 한번쯤은 되

짚어보아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웃는 낮에 침 못 뺏는다’ 라는 말도 있듯이 말 한마디, 웃는 얼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하고 나뻐던 기분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행동이다. 누군가 나로 인해, 그것도 사소한 나의 행동 하나에 기분이 좋아졌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래서 생각해 보았다. 하루에 한명의 고객에게만큼은 친절 한 말 한마디와 웃는 얼굴로 대해보자. 시작이 쉽지는 않겠지만 시작이 반이니 만큼, 정말 신경 써서 하루에 딱 한명만.. 그렇게 한 명을 두 명으로, 두 명을 세 명으로 늘려나가다 보면 몸과 마음에도 친절함이 배이지는 않을까?

‘친절’ 의 사전적인 의미는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을 말한다.

생활의 실천 속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몸과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봄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글 | 응급의료센터 정은향 간호사 (친절리더 4기)

한국 방사선 오염,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

[기고]

유병률 40세 이상 인구의 약 3.5%, 초기진단이 무엇보다 중요


현재 원자력 발전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방사선은 의학, 공업, 건설,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방사선 응용 첨단기기들을 개발하여 진료 및 공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최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더불어서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방사선에는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1년에 약 2.4 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노출되며 이중 약 80%가 자연방사선이고 20%가 인공방사선이다. 자연방사선은 지구에서 발산하는데 주로 라돈에 의하여 생성되며 우주방사선도 지표면에 도달한다. 인공방사선은 주로 의료기기, 발전소 등에서 발산한다.

방사선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 인체에 해로운가? 사람을 비롯한 생물은 지난 35억년 동안 200 밀리시버트까지는 생체가 적응을 하도록 진화하였다. 방사선의 연간허용량은 50 밀리시버트이며 5년허용량은 100 밀리시버트이다. 사람은 일시에 약 250 밀리시버트 이상 전신 피폭되면 백혈구 감소, 피곤, 빈혈, 구토 등의 임상증상을 느끼며 50 시버트면 수일 내에 사망한다. 시버트는 방사선의 인체 유효선량 단위인데 X선 촬영 1회에 부위에 따라 0.15-2 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을 받는다. 따라서 연간허용량인 50 밀리시버트에 노출되기 위하여는 많은 방사선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최근 위험등급 5단계로 잠정평가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방사성 물질 방출량은 이미 6단계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방사선에 노출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는데, 이들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냉각수에 발을 담근 채 작업하다 180밀리시버트에 피폭됐다.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까지 누출된 요오드량을 추정한 결과, 시간당 방출량이 3만에서 11만 테라베크렐(Bq)에 달했다. 그 결과, 도쿄의 수돗물이 방사선에 오염되었는데, 어린이 허용량은 100 Bq이고 성인의 허용량은 300-400 Bq이다. 방사선에 오염된 도쿄의 수돗물을 1000 L를 마시면 약 4.5 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 앞으로 대처를 잘 해서 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다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방사능 오염 수준이 당연히 일본보다 훨씬 낮아서 건강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 물론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방사선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미한 방사선 오염이라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과민반응이나 공황상태에 빠질 상황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방사성 요오드의 체내 축적을 억제하고 배설을 촉진하는 요오드 제제(kalium iodide)에 관심을 갖는 분도 계신데 이 요오드 제제는 40세 이상 성인의 경우 5 시버트 이상, 40세 이하 성인은 0.1 시버트 이상, 18세 이하나 임산부는 0.05 시버트 이상의 고준위에 피폭 가능성이 있을 때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피폭 하루 전이나 당일 복용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한다. 또한, 요오드 제제는 요오드 이외의 방사핵종 오염에는 효과가 없다. 현재처럼 저준위 방사선이 문제가 되고 있을 때에는 요오드가 많은 식품을 섭취하는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저준위 방사선의 위해성에 대하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저준위 방사선이 생체에 유익한 순기능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저준위 방사선이 항암면역기능 등 면역활성을 항진시켰으며(신 등, 2011, Genomics; 신 등, 2010,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저준위 방사선에 노출된 생쥐가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생쥐와 비교하여 기형정자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다(신 등, 2009, Journal of Radiation Research). 결론적으로 방사선의 인체영향은 노출된 방사선량에 따라 순기능을 할 수도 역기능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렴한 에너지원이며 선진화의 도구가 되는 원자력을 사고의 개연성이 잠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하기보다는 원자력의 안전은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대비되, 막연한 불안감과 거부감은 이성적인 시선으로 전환하여 건강한 삶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병행하는 현명한 타협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글 | 고려대 의대 생화학교실 박길홍 교수



